

태광 (023160)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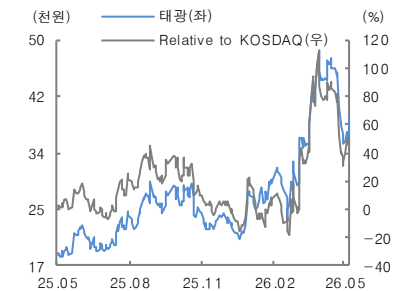
(26.05.22)

38,650

스몰캡업종

| | |
|-------------|---------------------------------------|
| KOSDAQ | 1161.13 |
| 시가총액 | 9,999억원 |
| 시가총액비중 | 0.15% |
| 자본금(보통주) | 129억원 |
| 52주 최고/최저 | 48,500원 / 18,210원 |
| 120일 평균거래대금 | 135억원 |
| 외국인지분율 | 20.52% |
| 주요주주 | 대신인태내셔널 외 10 인 46.75% 국민연금공단 5.55% |

| 주가수익률(%) | 1M | 3M | 6M | 12M |
|----------|-------|------|------|-------|
| 절대수익률 | -13.2 | 25.3 | 74.1 | 112.2 |
| 상대수익률 | -11.8 | 24.5 | 29.5 | 31.2 |



막힌 LNG, 빨라지는 모듈러 투자

- 미주향 수출 증가로 1Q26 매출액 823억원 (YoY +32.9%) 기록
- 중형 모듈러 방식의 미국 LNG 수출 터미널 투자 예상
- 미주향 수출 물량 증가로 펀더멘탈 개선 전망. PBR 할증 정당

미주향 수출 증가 및 일부 호르무즈 우회 해협 투자로 매출 성장

1Q26 매출액 823억원 (YoY +32.9%), 영업이익 93억원(YoY +25.6%) 기록. 중동 분쟁으로 인한 일부 중동향 품목 납기 지연 및 2차전지 기자재업체인 HYTC의 적자 지속에도 미주향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 미주향 매출은 4Q25 190억원에서 1Q26 220억원으로 1분기 매출 성장을 견인함. 일부 호르무즈 우회 항로에 대한 투자에 따른 물량 매출 일부 발생

원유와 달리 대안 수출로가 부재한 LNG 수출 터미널

원유의 경우, 제한적이지만 홍해 안부(Yanbu) 항을 통한 우회 물량과 UAE 푸자이라(Fujairah) 항을 통한 일부 수출 물량이 존재함. 우회 물량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것 외에는 대안이 부재함. LNG의 경우, 우회 항로를 짓더라도 대안 항로에 LNG 수출 터미널을 신규로 지어야 하나, 현재 LNG 수출터미널 장비는 병목 구간에 위치함

리드타임이 긴 메가트레인. 대안인 중형 모듈러 방식의 수혜 예상

대형 및 메가트레인 LNG 수출 터미널에 사용되는 가스터빈, 압축기, 극저온 열교환기의 리드타임은 2.5 ~ 4년으로 파악됨. 좀 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중형 모듈러(BAHX) 방식의 LNG 및 FLNG 프로젝트들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LNG 부족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 중형 모듈러 방식의 미국 LNG 수출 터미널에 노출도가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됨

늘어나는 북미향 수출 비중. 개선될 펀더멘탈

26년 매출액 3,291억원(YoY +10.8%), 영업이익 486억원(YoY +25.5%)을 전망. 미주향 수출 물량 증가로 이익의 기저 레벨 높아질 것. 26년 예상 PBR 1.6배 수준. 최근 10년 평균 PBR 0.7배 대비 할증 거래 중. 본격 업사이클 구간에 위치한 상황으로 PBR 할증은 정당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 | 2024A | 2025A | 2026F | 2027F | 2028F |
|---------|--------|--------|--------|--------|--------|
| 매출액 | 2,668 | 2,970 | 3,291 | 3,834 | 4,054 |
| 영업이익 | 399 | 387 | 486 | 690 | 791 |
| 세전순이익 | 578 | 862 | 409 | 615 | 718 |
| 총당기순이익 | 461 | 655 | 311 | 468 | 546 |
| 지배지분순이익 | 449 | 639 | 299 | 463 | 540 |
| EPS | 1,736 | 2,469 | 1,151 | 1,790 | 2,089 |
| PER | 10.2 | 8.8 | 33.6 | 21.6 | 18.5 |
| BPS | 21,360 | 23,569 | 24,699 | 26,303 | 28,147 |
| PBR | 0.8 | 0.9 | 1.6 | 1.5 | 1.4 |
| ROE | 8.2 | 10.7 | 4.7 | 7.0 | 7.7 |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태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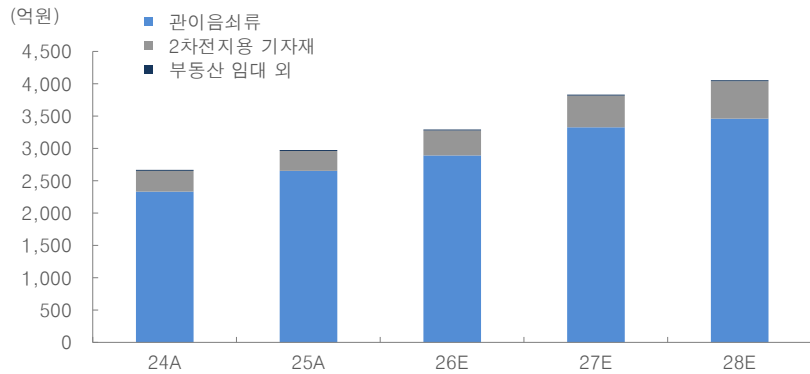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 23A | 24A | 25A | 26E | 27E | 28E |
|--------------|--------------|--------------|--------------|--------------|--------------|--------------|
| 신규수주 | 2,934 | 3,014 | 3,114 | 3,461 | 3,915 | 4,214 |
| yoy | 0.8% | 2.7% | 3.3% | 11.1% | 9.3% | 3.2% |
| 관아음식류 | 2,509 | 2,694 | 2,799 | 3,068 | 3,414 | 3,625 |
| 2차전지용 기자재 | 425 | 320 | 315 | 393 | 501 | 589 |
| 매출액 | 3,121 | 2,668 | 2,970 | 3,291 | 3,834 | 4,054 |
| yoy | 25.0% | -14.5% | 11.3% | 10.8% | 16.5% | 5.8% |
| 관아음식류 | 2,699 | 2,331 | 2,655 | 2,892 | 3,326 | 3,459 |
| 2차전지용 기자재 | 406 | 323 | 306 | 384 | 492 | 580 |
| 부동산 임대 외 | 15 | 14 | 12 | 15 | 16 | 16 |
| 매출총이익 | 895 | 722 | 859 | 952 | 1,150 | 1,257 |
| yoy | 20.5% | -19.3% | 19.0% | 10.8% | 20.8% | 9.3% |
| 매출총이익률 | 28.7% | 27.1% | 28.9% | 28.9% | 30.0% | 31.0% |
| 영업이익 | 577 | 399 | 387 | 486 | 690 | 791 |
| yoy | 27.3% | -30.9% | -2.9% | 25.5% | 42.0% | 14.6% |
| 영업이익률 | 18.5% | 14.9% | 13.0% | 14.8% | 18.0% | 19.5% |
| 세전이익 | 706 | 578 | 862 | 409 | 615 | 718 |
| yoy | 51.0% | -18.1% | 49.0% | -52.5% | 50.4% | 16.7% |
| 세전이익률 | 22.6% | 21.7% | 29.0% | 12.4% | 16.0% | 17.7% |
| 당기순이익 | 551 | 449 | 639 | 299 | 463 | 540 |
| yoy | 54.0% | -18.5% | 42.2% | -53.3% | 55.1% | 16.7% |
| 당기순이익률 | 17.6% | 16.8% | 21.5% | 9.1% | 12.1% | 13.3% |

자료: 회사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그림 1. 태광 부문별 매출액 전망



자료: 회사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처 다변화, 주된 수출처는 미국 & 아프리카

미국 & 아프리카 주도의 LNG 수출 증가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이후, 전쟁의 양상과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LNG를 주로 수입해왔던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산 LNG 수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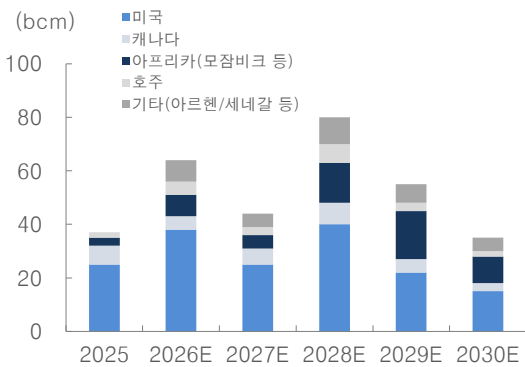
러-우 사태처럼 아시아 지역의 LNG 수입 기저 가격은 높아질 것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TTF 가격은 전쟁 전 16.1 EUR/MWh에서 전쟁 이후 39.1 EUR/MWh로 약 2.4배 정도 LNG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러시아 지역 외 대안 수입지의 생산비용과 운반비용이 LNG 가격으로 전이되어 유럽이 수입하는 LNG 가격의 기저가 높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LNG 수입처 다변화로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흐름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IEEFA의 추정에 따르면, LNG 수입가격은 30 ~ 100%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

IEEFA 추정에 따르면, 카타르 LNG 대비 미국산 LNG의 총 수입 비용은 희망봉을 우회하여 올 시, 약 4 ~ 5배 가량의 비용이 더 비쌀 것으로 추정한다. 전체 호르무즈 내지 중동산 수입 물량을 10 ~ 30% 미국산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 비용은 최소 30% 에서 2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미국 &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LNG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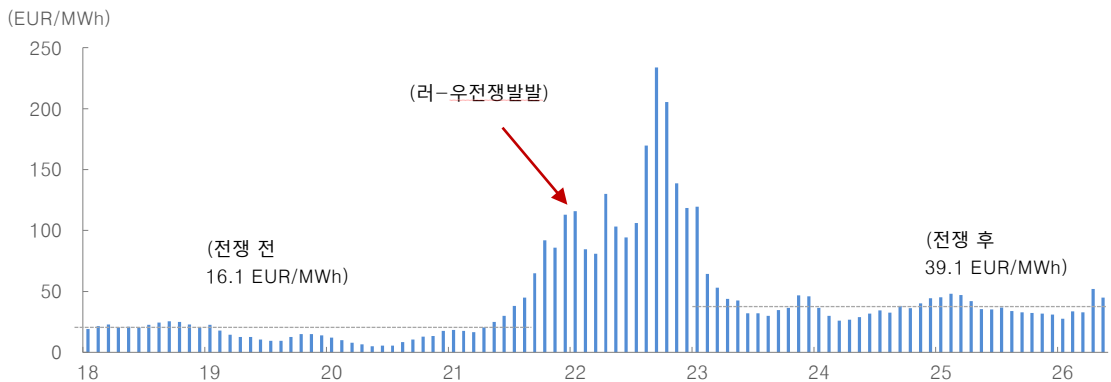
자료: IEA, BA, Shell LN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주요 국가 LNG 수입처 다변화 계획

| 국가 | 중동산 비중 (현재) | 목표 | 대체 공급원 | 출처 |
|-----------|-------------------------------|-----------------------------|---|-------------------|
| 대만 CPC | 카타르 ~34% (2025년 814만톤/2375만톤) | 미국산 30~33%로 확대 (현재 10%) | 미국, 호주, PNG | CPC 회장 발표 |
| 한국 KOGAS | 중동산 ~33% (2024) | 20% 이하로 축소 (2025년 말) | 호주(Prelude 자분), 캐나다(LNG Canada 5% 자분), 미국 | KOGAS 발표 |
| 일본 IERA 등 | 카타르 ~5~10% | 장기계약 만료 후 미경신, 미국호주 확대 | 미국, 호주, 알래스카 LNG 검토 중 | 카타르 장기계약 2021년 만료 |
| 유럽 EU | 카타르 ~12~14% (LNG 수입 중) | 2027년까지 단계적 퇴출 + 중동 의존도 재검토 | 미국, 노르웨이 (파이프라인), 서아프리카 | EU 이사회 결정 (20257) |

자료: 산업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러-우 전쟁 이후, 기저가 올라간 러시아 가스가격



자료: Investin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형 모듈러 방식의 건설중인 수출 터미널과 FLNG의 수혜 예상

중형 모듈러 방식의 EPC부터 생산의 리드 타임은 2.5 ~ 3.5년

중형 모듈러 방식(BAHX)의 총 장비의 리드타임은 가스터빈 18 ~ 24개월, 냉매 압축기 15 ~ 22개월, 열교환기 12 ~ 18개월로 전체 EPC 리드타임은 30 ~ 42개월. 메가 트레인 급의 50 ~ 72개월과 비교해서 최소 20개월 이상 빠른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EPC 보다는 현재 건설중인 중형 모듈러 방식의 빠른 완공을 예상함

신규 EPC의 경우, 중형 모듈러 방식도 카타르 메가트레인 회복 리드타임과 비슷한 소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보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LNG 및 FLNG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로 갈수록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스가격의 MoM 상승을 전망하며, 이에 따라 관세 및 가스 가격 때문에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의 빠른 진행을 예상된다.

현재 건설 중인 중형 모듈러 방식의 LNG 및 FLNG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LNG 수출 터미널 중 중형 모듈러 방식의 Corpus Christi Stage 3, CCL Midscale Trains 8 & 9, Plaquemines LNG Phase 2와 Coral Norte FLNG, MK2 FLNG, Genting FLNG, Cedar LNG 등의 건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LNG 트레인 사이즈 분류 체계 (2026년 기준)

| 구분 | 메가 트레인 | 중형 모듈러 방식 | Small FLNG |
|--------------------|-------------------------------|--------------------------------------|---------------------------------------|
| 트레인당 용량 | 5 ~ 8 MTPA | 1 ~ 2 MTPA / 모듈 | 0.3 ~ 0.8 MTPA |
| 대표 공정 | C3-MR / AP-X / DMR | IPSMR / PRICO / SMR | N2 Expander / SMR |
| 대표 프로젝트 | Qatar Energy NFE, Sabine Pass | VG Calcasieu, Plaquemines, Cedar LNG | Hilli Episeyo, Tortue, Argentina FLNG |
| 열교환기 | CWHE (MCHE) | BAHX (Cold Box) | BAHX + Plate-Fin |
| 리드타임 | 36 ~ 48 개월 | 12 ~ 18 개월 | 8 ~ 12 개월 |
| 구동기 (GT) | LM 9000 / Frame 7,9 | LM 6000PF + / LM 2500 +G4 | LM2500 / 전동모터 |
| 리드타임 | 30 ~ 42 개월 | 18 ~ 24 개월 | 12 ~ 18 개월 |
| 냉매 압축기 | 대형 배럴형 원심 (70+MW) | 중형 원심, IGC (30 ~ 55MW) | 소형 원심, 터보 팽창기 |
| 리드타임 | 30 ~ 42개월 | 15 ~ 22개월 | 10 ~ 16개월 |
| 전체 EPC 리드타임 | 50 ~ 72개월 (4 ~ 6년) | 30 ~ 42개월 (2.5 ~ 3.5년) | 24 ~ 36개월 (2 ~ 3년) |

자료: 산업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우회 수출로가 존재하는 원유. 대안 수출로가 부재한 LNG

원유와 달리 LNG는 대체 수출로가 부재함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원유와 가스에 동시에 영향을 주었지만, 원유와 가스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예정이다. 일부 육상 기반 우회 인프라가 존재하는 원유와 달리, LNG는 사실상 모든 수출이 해협 통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운송량의 15 ~ 27% 수준의 대체가 가능한 육상 우회 수출로가 존재하는 원유

원유는 제한적이지만 대체 경로가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East-West Pipeline(Petroline)은 홍해 양부(Yanbu)향으로 연결되며 설계 용량은 7 mb/d 수준이다. 호르무즈 사태 이전 가동률을 고려하면 3 ~ 5 mb/d 수준의 우회 여력이 존재한다. UAE 역시 Fujairah로 연결되는 ADCOP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수출을 호르무즈 밖으로 우회할 수 있다. 두 파이프라인을 합산하면 약 3.5 ~ 5.5 mb/d 수준의 우회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호르무즈를 통해 막힌 원유 물량의 15 ~ 27% 수준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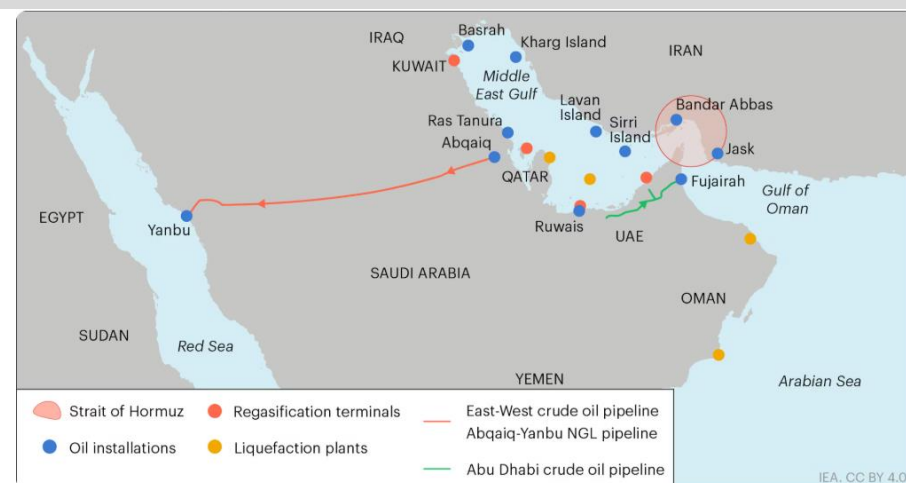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는 것 이외에 딱히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카타르 LNG 수출 터미널

반면 LNG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카타르 LNG 수출 터미널을 대체할 수 있는 육상 우회 인프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Dolphin Pipeline은 Qatar North Field와 UAE를 연결하는 지역 내수용 가스관일 뿐 글로벌 LNG 수출 경로가 아니며, 과거 논의되었던 터키 - 카타르 가스관 역시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막대한 투자비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결국 카타르 LNG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방법외에는 수출 방법이 없는 구조다.

LNG 대체항로는 수출 터미널용 장비의 문제, 완공까지 6 ~ 8년의 오랜기간이 소요되어 실현될 메리트가 낮음

LNG 수출의 우회로는 약 1,500KM로, 현실적으로 대안 수출로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대체 우회로의 공사가 어려운 것은 결국 LNG 수출용 터미널 항구를 대체 항로에 또 다시 지어야 하며, LNG 수출 터미널은 현재 핵심 장비들의 병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호르무즈 해협 대안로의 건설 기간은 6 ~ 8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안 수출지인 FLNG 및 중형 모듈러 방식의 LNG 수출 터미널이 신규 EPC에서 생산까지 2.5 ~ 3.5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크지 않다.

그림 6. 우회 수출로가 존재하는 원유 수출 터미널



자료: I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높아질 LNG 가격,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 점차 부각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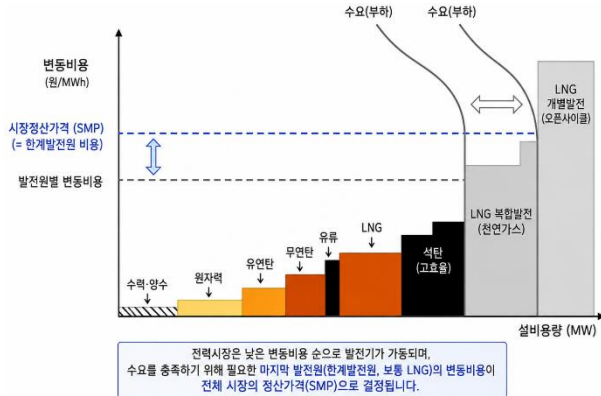
한계비용 역할을 하는 LNG 가격의 상승으로 기저 전기 요금도 상승하게 될 것

전력 시장에서 한계요금은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발전원의 발전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도 여전히 전력 공급의 최종 균형은 LNG 복합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나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LNG 발전기가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추가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LNG 연료 가격이 곧 전력 시장의 한계요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스의 대안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등의 설치량이 증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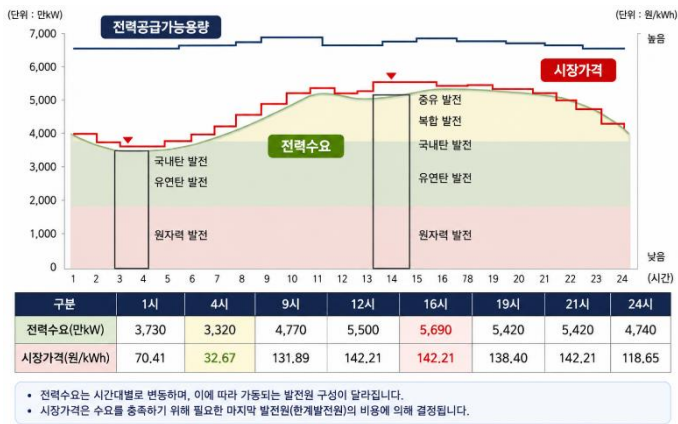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 가격은 30 ~ 100% 가까이 기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NG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력 비용의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가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를 대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 BESS) 등 대안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전기가격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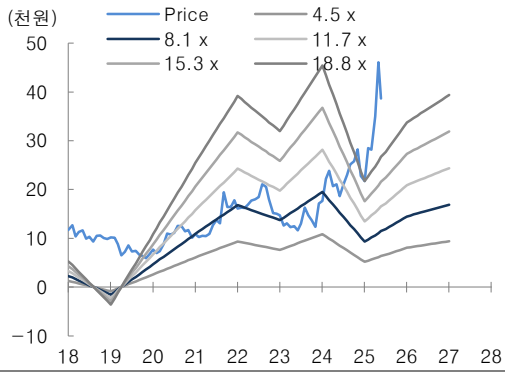
자료: Open Economy, GPT 재구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전기 수요,공급 및 시장가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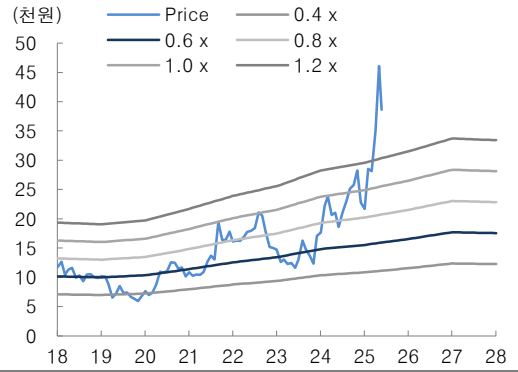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GPT 재구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태광 PER 밴드



자료: 회사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태광 PBR 밴드



자료: 회사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태광 역사적 주가추이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무제표

| | 2024A | 2025A | 2026F | 2027F | 2028F |
|-------------|-------|-------|-------|-------|-------|
| 매출액 | 2,668 | 2,970 | 3,291 | 3,834 | 4,054 |
| 매출원가 | 1,946 | 2,110 | 2,339 | 2,684 | 2,798 |
| 매출총이익 | 722 | 859 | 952 | 1,150 | 1,257 |
| 판매비와관리비 | 323 | 472 | 466 | 460 | 466 |
| 영업이익 | 399 | 387 | 486 | 690 | 791 |
| 영업이익률 | 14.9 | 13.0 | 14.8 | 18.0 | 19.5 |
| EBITDA | 501 | 509 | 609 | 816 | 919 |
| 영업외손익 | 180 | 475 | -77 | -75 | -73 |
| 관계기업손익 | 0 | 0 | 0 | 0 | 0 |
| 금융수익 | 253 | 631 | 52 | 49 | 49 |
| 외환관련이익 | 0 | 0 | 0 | 0 | 0 |
| 금융비용 | -75 | -71 | -43 | -38 | -36 |
| 외환관련손실 | 20 | 43 | 34 | 34 | 34 |
| 기타 | 1 | -86 | -86 | -86 | -8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78 | 862 | 409 | 615 | 718 |
| 법인세비용 | -117 | -207 | -98 | -148 | -172 |
| 계속사업순이익 | 461 | 655 | 311 | 468 | 546 |
| 중단사업순이익 | 0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 | 461 | 655 | 311 | 468 | 546 |
| 당기순이익률 | 17.3 | 22.1 | 9.4 | 12.2 | 13.5 |
| 비재배분순이익 | 12 | 16 | 12 | 5 | 5 |
| 재배분순이익 | 449 | 639 | 299 | 463 | 540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0 | 0 | 0 | 0 | 0 |
| 기타포괄이익 | -22 | 85 | 20 | 5 | 1 |
| 포괄순이익 | 440 | 740 | 331 | 473 | 547 |
| 비재배분포괄이익 | 15 | 16 | 3 | 5 | 5 |
| 재배분포괄이익 | 425 | 724 | 328 | 468 | 541 |

| | 2024A | 2025A | 2026F | 2027F | 2028F |
|-----------|--------|--------|--------|--------|--------|
| EPS | 1,736 | 2,469 | 1,151 | 1,790 | 2,089 |
| PER | 10.2 | 8.8 | 33.6 | 21.6 | 18.5 |
| BPS | 21,360 | 23,569 | 24,699 | 26,303 | 28,147 |
| PBR | 0.8 | 0.9 | 1.6 | 1.5 | 1.4 |
| EBITDAPS | 1,890 | 1,919 | 2,347 | 3,154 | 3,552 |
| EV/EBITDA | 7.9 | 8.6 | 14.3 | 10.7 | 9.0 |
| SPS | 10,068 | 11,206 | 12,692 | 14,822 | 15,674 |
| PSR | 1.8 | 1.9 | 3.0 | 2.6 | 2.5 |
| CFPS | 2,055 | 2,002 | 391 | 1,192 | 1,599 |
| DPS | 250 | 535 | 250 | 250 | 250 |

| | 2024A | 2025A | 2026F | 2027F | 2028F |
|----------|-------|-------|-------|-------|-------|
| 성장성 | | | | | |
| 매출액 증가율 | -14.5 | 11.3 | 10.8 | 16.5 | 5.7 |
| 영업이익 증가율 | -30.9 | -2.9 | 25.5 | 42.0 | 14.6 |
| 순이익 증가율 | -20.7 | 42.0 | -52.5 | 50.4 | 16.7 |
| 수익성 | | | | | |
| ROC | 8.2 | 7.2 | 8.5 | 11.2 | 12.2 |
| ROA | 6.2 | 5.5 | 6.4 | 8.7 | 9.2 |
| ROE | 8.2 | 10.7 | 4.7 | 7.0 | 7.7 |
| 안정성 | | | | | |
| 부채비율 | 8.3 | 10.6 | 11.7 | 12.7 | 13.9 |
| 순차입금비율 | -19.1 | -27.4 | -25.8 | -24.3 | -28.6 |
| 이자보상배율 | 66.3 | 64.7 | 0.0 | 0.0 | 0.0 |

자료: 태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 2024A | 2025A | 2026F | 2027F | 2028F |
|-------------|--------|--------|--------|--------|--------|
| 유동자산 | 3,088 | 4,152 | 4,390 | 4,921 | 5,56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1 | 356 | 380 | 430 | 92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642 | 743 | 823 | 956 | 1,013 |
| 재고자산 | 1,232 | 1,518 | 1,732 | 2,130 | 2,252 |
| 기타유동자산 | 894 | 1,535 | 1,454 | 1,406 | 1,376 |
| 비유동자산 | 3,515 | 3,256 | 3,276 | 3,301 | 3,324 |
| 유형자산 | 1,832 | 1,886 | 1,914 | 1,938 | 1,960 |
| 관계기업투자금 | 0 | 0 | 0 | 0 | 0 |
| 기타비유동자산 | 1,683 | 1,370 | 1,363 | 1,363 | 1,365 |
| 자산총계 | 6,603 | 7,408 | 7,667 | 8,222 | 8,890 |
| 유동부채 | 345 | 527 | 595 | 699 | 829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66 | 411 | 425 | 448 | 457 |
| 차입금 | 0 | 0 | 0 | 0 | 0 |
| 유동상채무 | 0 | 0 | 0 | 0 | 0 |
| 기타유동부채 | 80 | 116 | 170 | 251 | 372 |
| 비유동부채 | 163 | 185 | 206 | 229 | 255 |
| 차입금 | 0 | 0 | 0 | 0 | 0 |
| 전환증권 | 0 | 0 | 0 | 0 | 0 |
| 기타비유동부채 | 163 | 185 | 206 | 229 | 255 |
| 부채총계 | 509 | 712 | 800 | 927 | 1,084 |
| 자배지분 | 5,660 | 6,246 | 6,404 | 6,804 | 7,281 |
| 자본금 | 133 | 133 | 129 | 129 | 129 |
| 자본잉여금 | 443 | 273 | 273 | 273 | 273 |
| 이익잉여금 | 5,220 | 5,974 | 6,134 | 6,532 | 7,008 |
| 기타지분변동 | -135 | -134 | -132 | -131 | -129 |
| 비지배지분 | 434 | 450 | 462 | 491 | 525 |
| 자본총계 | 6,095 | 6,696 | 6,866 | 7,295 | 7,806 |
| 순차입금 | -1,166 | -1,832 | -1,773 | -1,771 | -2,232 |

| | 2024A | 2025A | 2026F | 2027F | 2028F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592 | 194 | -204 | -270 | 147 |
| 당기순이익 | 461 | 655 | 311 | 468 | 546 |
| 비현금항목의 가감 | 83 | -125 | -210 | -159 | -132 |
| 감가상각비 | 102 | 121 | 123 | 126 | 128 |
| 외환손익 | -38 | -3 | -2 | -2 | -2 |
| 지분법평가손익 | 0 | 0 | 0 | 0 | 0 |
| 기타 | 19 | -243 | -330 | -283 | -258 |
| 자산부채의 증감 | 101 | -324 | -280 | -506 | -169 |
| 기타현금흐름 | -53 | -13 | -25 | -72 | -97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58 | 10 | -62 | -100 | -120 |
| 투자자산 | -321 | 161 | 7 | 1 | 0 |
| 유형자산 | -132 | -142 | -142 | -142 | -142 |
| 기타 | -5 | -8 | 73 | 42 | 22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125 | -167 | 10 | 87 | 87 |
| 단기차입금 | 0 | 0 | 0 | 0 | 0 |
| 사채 | 0 | 0 | 0 | 0 | 0 |
| 장기차입금 | -1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170 | -3 | 0 | 0 |
| 현금배당 | -44 | -138 | -138 | -65 | -65 |
| 기타 | -80 | 141 | 152 | 152 | 152 |
| 현금의 증감 | 12 | 35 | 24 | 49 | 494 |
| 기초 현금 | 309 | 321 | 356 | 380 | 430 |
| 기말 현금 | 321 | 356 | 380 | 430 | 924 |
| NOPLAT | 318 | 294 | 369 | 525 | 601 |
| FCF | 287 | 270 | 349 | 507 | 586 |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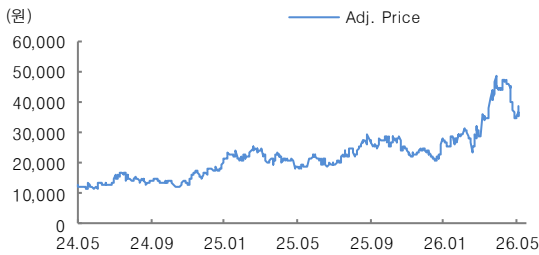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박장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태광(02316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 | |
|-------------|--|
| 제시일자 | |
| 투자의견 | |
| 목표주가 | |
| 과리율(평균%) | |
| 과리율(최대/최소%) | |
| 제시일자 | |
| 투자의견 | |
| 목표주가 | |
| 과리율(평균%) | |
| 과리율(최대/최소%) | |
| 제시일자 | |
| 투자의견 | |
| 목표주가 | |
| 과리율(평균%) | |
| 과리율(최대/최소%) | |
| 제시일자 | |
| 투자의견 | |
| 목표주가 | |
| 과리율(평균%) | |
| 과리율(최대/최소%) |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기준일자:20260522)

| 구분 | Buy(매수) | Marketperform(중) | Underperform(매도) |
|----|---------|------------------|------------------|
| 비율 | 90.6% | 9.4% | 0.0% |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비중확대)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비중축소)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